

제42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6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6시09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안 들어 오셔 가지고 되게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여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미국의 부당한 관세 협상에 따른 농업 보호 결의안 채택을 제안드립니다.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미국쌀 구매 확대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농축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업을 또다시 한미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과 농민들은 계속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의 현실이 어떤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농해수 위원님들께서도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농촌·농민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해수위 선배·동료 위원님들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에, 농업·농촌·농민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런 입장에 기반해 협력해 왔던 전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통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함께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민들의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민 생존의 기반입니다. 전농, 한농, 한우협회, 쌀전업농 등 많은 농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미국 정부의 부당한 관세 협상과 보호

결의안을 우리 농해수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농업 대전환의 길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 전종덕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한미통상 협상에서 농업·농촌을 위한 결의안 환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문금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예, 문 위원님.

○문금주 위원 우리 전재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당초에는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제도 국힘이 거부를, 출석을 안 하시고 오늘도 지금 4시 까지 시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금 답을 안 주고, 상임위 양 간사 간에는 합의를 다 했는데 지금 듣기로는 원내대표, 국힘 지도부 차원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 운영 발목잡기 아니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충분히 다 소명이 됐고 나름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새출발을 지금 하려고 하는 해수부에, 오늘까지 안 되면 또 다음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뭔가 큰 결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국힘, 최대한 빨리 합의 처리 정신에 입각해서 출석해서 해수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조기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정회를 했고 그러다가 12시 넘기면서 자동 산회가 되었는데요. 오늘 4시에는 합의 처리하기로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혀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지금 문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 전부 다인데요, 오늘 양당 간사님께서 수차례 전화 통화하고 오늘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하고 지금 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아직 회의장에 입장을 못 하고 있는데 원내지도부가 막고 있어서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원내지도부가 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농해수위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도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탄을 하고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히 규탄하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보도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님.

○서삼석 위원 우선 여야 간사 간의 합의된 내용이 여러 날을 통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국힘당 지도부 뜻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 당선 이후에 연말까지 속히 이전하라는 그런 지시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 출신 우리 당의 후보 지명 또 역대 정부가 손도 못 댔던 북극항로 개척,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후보로 지명된 전재수 지명자의 어떤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판단한 그런 나머지 결과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련의 해수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전재수 후보자의 결단, 추진력 이런 것에 부산시민들은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국힘당만 또 국힘당 소속 일부 의원들만이 반대하는 것은 다분히 양당 간의,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고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다…… 원하는 부산시민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도 관련 사안들을 소상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듭 부산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 속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보도자료 쓸 때 참고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을 지켜봤던 국민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가장 관심사였던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직원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루라도 빠르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조속히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며 특히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이나 조승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부산 민심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계시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바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내 전략 차원에서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국민의힘 태도는 도저히 국민 모든 분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시라도 급하게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고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자동 산회되거나 전이라도 일정을 바꿔서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사함으로 남을 속여서 희롱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당과 합의했습니다. 야당의 조삼모사식 작태를 엄중히 비판하면서……

흔히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결단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조삼모사식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국민의힘의 정치적 셈법으로 인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과정의 목적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과 인사시스템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셈법에 희생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저는 가급적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한남동에서 그리고 각지에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보호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반성을 하셔야지요. 국정의 빠른 정상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협조해도 국민들이 용서할까 말까 한데 계속 이렇게 합의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어기고, 저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오늘 중으로 뭐 7시든, 9시든, 12시든 시간을 주셔 가지고 최후 통첩을 하시고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응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의견 잘 유념해서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회의가 끝나면 아무 이유 없이, 엊그제 청문회가 별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합의해 놓고 들어오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9인)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어기구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청가 위원(5인)

김선교 서천호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